

2023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강릉시의회
GANGNEUNG CITY COUNCIL

목차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1

연수 일반	01
연수개요	01
연수일정	02
연수국현황	03
주요 방문지 및 연수 주안점	04

2

주요 방문지	05
도쿄 지정관리 취업센터	05
아사쿠사	10
국회의사당	12
도쿄도청사 전망대	14
아라카와구 의회	16
도쿄도 거리	19

3

맺음말	23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구증대 방안	23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	24
후기	25



연수일반

I

연수 일반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 국제적인 관광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강릉시 관광 발전 방향 모색
- 일자리 지원사업 견학을 통한 인구늘리기 정책 방향 검토
-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사례 비교·연구
-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ITS 세계총회 등 국제행사 홍보 및 참여 독려

□ 연수기간: 2023. 4. 10.(월) ~ 4. 12.(수) / 2박 3일

※ 당초계획: 2023. 4. 10.(월) ~ 4. 14.(금) / 4박 5일

– 4. 11.(화) 산불발생으로 조기 귀국

□ 연수 국가 및 일정: 일본 도쿄

- 출국항공편: 4. 10.(월) (13:40) 양양(한국) ⇒ 일본(나리타)
- 귀국항공편: 4. 12.(수) (18:40) 일본(나리타) ⇒ 양양(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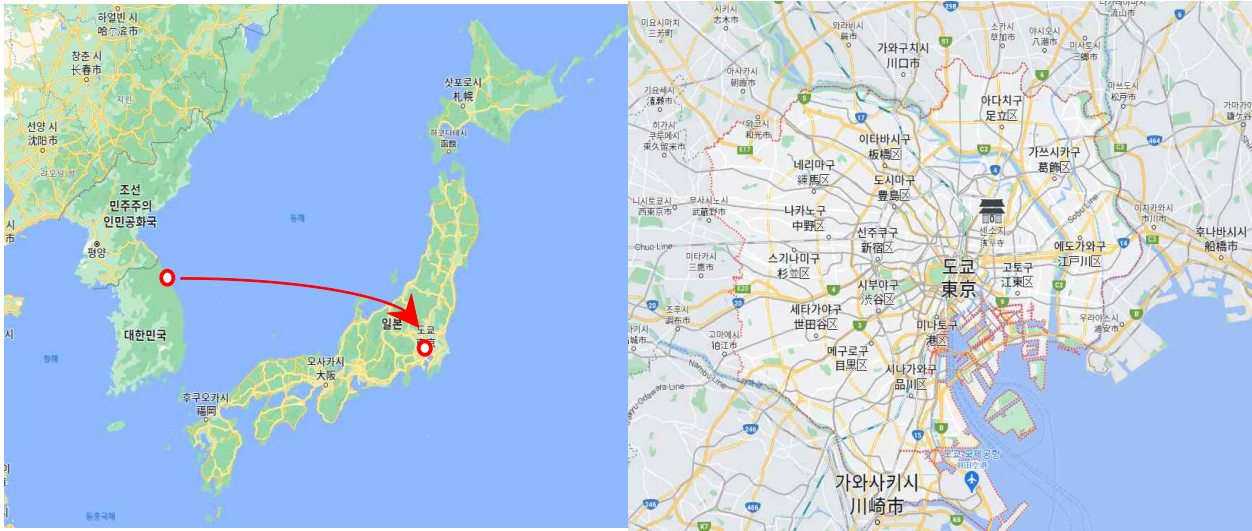
□ 연수인원: 12명

- 시의회: 9명(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 수 행: 3명(행정전문위원, 김근하, 공초롱)

2. 연수일정

월/일	지역	교통편	시간	상세일정	기 타
1일차 4.10. (월)	강 룡	시의회버스	11:30	■ 강릉 출발	
			12:10	■ 양양국제공항 도착 및 출국 수속	
	양 양	AV313	13:40	■ 양양국제공항 출발(1시간 50분 소요, 시차 없음)	
	일 본		16:00	■ 나리타공항 도착 및 수속	
			19:30	■ 숙소 도착 및 정리	
2일차 4.11. (화)	일본	전용차량	전 일	■ 도쿄 지정관리 취업프로젝터 센터 방문 ■ 아사쿠사 방문 ■ 일본 국회의사당 견학 ■ 도쿄도청 전망대 견학	
3일차 4.12. (수)	일 본	AV314	오전	■ 도쿄 아라카와구 의회 방문	
			18:40	■ 나리타공항 출발(1시간 50분 소요, 시차 없음)	
	양 양	시의회버스	21:00	■ 양양공항 도착	
	강 룡		22:00	■ 강릉 도착	

3. 연수국(도시) 현황



일본

도쿄

○ 일반현황

현 황	일본	도쿄도
면 적	37만7,975km ²	628km ²
인 구	1억2,329만명(2023)	1,404만명(2020)
행정체계	1도(都), 1도(道), 2부(府), 43현(県)	23개 구, 26개 시, 5개 정, 8개 촌
1인당 국민총소득	4만2,620달러(2021)	
언어	일본어	

4. 주요 방문지 및 연수 주안점

연 번	방문지	연수 주안점	비 고
1	도쿄지정관리 취업 프로젝터 센터	일본의 취업센터를 방문하여 도쿄 현지의 취업 정책을 탐구하고 강릉과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 연구	
2	아사쿠사	강릉 방문 인원 중 80%가 넘는 무박 관광객이 체류 할 수 있는 관광지 활성화 정책 탐구 및 관광지역 소득 증대 모색	
3	일본 국회의사당	일본 국회의사당 견학을 통해 한국과 다른 의회 체제(양원 체제) 비교 견학	
4	도쿄도청 전망대	공공기관을 이용한 관광객 증대 방안 모색 (도쿄도청 고층을 일반인에게 전망대로 무료 개방하여 관광객 증대 수단으로 활용)	
5	아라카와구의회	타 국가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운영사례 벤치 마킹 및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선진 사례 비교·연구	
6	도쿄도 거리	도쿄도 길거리를 걸으며 강릉과의 차이점 분석 및 선진사례 확인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주요방문지

II 주요 방문지

1 도쿄 지정관리 취업센터

1. 방문현황

- 방문일시: 2023. 4. 11.(화) 09:30
- 장 소: 도쿄취업센터
- 내 용: 취업센터 활용 우수사례 수집

- 도쿄도민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도쿄도가 설립한 일자리 관련 원스톱 서비스센터이다. 연령대에 따라 29세 이하, 30세에서 55세까지의 미들코너, 55세 이상의 시니어코너로 나누어서 지원하며, 그 이외에도 장애인, 여성재취업,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분야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취업지원센터이다.



도쿄취업센터

- 취업센터는 1년에 약 3만 명이 취업을 지원하며, 지금까지 약 50만 명이 신청하였고, 지원자 중 취업률은 50%*이다. 위탁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은 약 600여 명이며, 급여는 도쿄도에서 지급한다.

* 정확한 취업률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 처음 신청하는 취업 지원자는 온라인, 전화, 모바일 및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합상담실

- 전문상담사의 일대일 카운슬링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 활동지원 세미나를 통해 자기분석, 응시원서 서류작성 방법, 면접 대책 등 다양한 노하우를 알려준다. 프로그램에 따라 e-러닝, 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10일~20일의 실습, 구직회사의 강습 및 합동면접회 등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별 구직 안내 책자

구직 신청서

시니어코너의 경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음

- 1층 여성, 시니어코너, 2층 미들코너, 3층 29세 이하, 4층 장애인 등 분야별 구역을 나누어 안내하며, 주기적으로 소규모 기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기업과 지원자의 만남을 갖는다.
- 또한, 같은 건물 내 헬로워크*, 노동 상담 정보센터,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복지 인재 센터가 입주하여 취업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소개센터



기업박람회 참여 업체 안내



헬로워크 제3부문(시니어 대상)

2. 시사점 및 제언

- **(인구 감소)** 강릉시는 인구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지난 2000년 233,121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인구증가 정책)** 인구늘리기를 위해 출산지원정책, 청년 정착지원 사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통한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 일자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 수도권 기업 지역유치, 일자리 1만 개 창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지역을 떠나는 인재들이 많은 상황이다.
- **(종합일자리지원센터)** 현재 강릉시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일자리 정보와 인력풀 매칭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적성평가 및 취업기술 강의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반 구직자만이 아닌 취업 취약계층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일자리 지원 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부문별 지원) 종합일자리를 지원하더라도 부문별 담당자를 분리하여 전문성을 갖춰야하며, 담당자 1인당 취업지원자 수를 일정 이내로 관리하여 지원 집중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② 아사쿠사

1. 방문현황

□ 방문일시: 2023. 4. 11.(화) 11:30

□ 장 소: 아사쿠사

□ 내 용: 관광지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 도쿄도 다이토구의 지명 중 하나로 관동대지진으로 사라질 뻔했으나, 현재는 복구되어 관광지이자 랜드마크로 유명하다. 특히 일본의 시타마치(下町, 번화가)의 정서, 서민 동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도쿄 내 가장 큰 절인 센소지가 있으며, 센소지의 입구에서 본당에 이르기 전의 길 양옆으로 펼쳐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나카미세도리) 역시 유명하다.



나카미세도리

- 옛 일본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기념품이나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맛집이 많으며, 공예품이나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식 거리들을 판매하고 있다. 일본 대부분의 관광지는 입구부터 관광지까지 상점가가 길게 늘어서있어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2. 시사점 및 제언

- 관광지 입구에서 관광지까지 250m의 거리가 지역 공예품, 기념품, 간식을 판매하며, 옛 일본거리 형식의 상점가로 이루어져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한다.
- 거리의 간판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느낄 수 있으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깨끗하고 걷기 편한 길의 이미지를 준다. 옛 상점가인 만큼 거리를 지나며 본 대부분의 간판이 일본어로 제작되어 있어, 그 시절의 거리를 느껴 볼 수 있다.
- 강릉은 관광의 도시로 다양한 관광지가 존재하며, 자영업이 80%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별 특색있는 상권의 형성이 필요하다.

③ 국회의사당

1. 방문현황

□ 방문일시: 2023. 4. 11.(화) 15:00

□ 장 소: 국회의사당

□ 내 용: 일본의 정치체제 및 현황 견학

- 일본은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참의원은 총 248명(지역 148명, 비례 100명)이며, 임기는 6년이지만 3년마다 의석의 반수가 다시 선거를 하게 된다. 중의원은 총 465명(지역 289명, 비례 176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 통상 국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소집되어 150일간의 회기를 갖으며, 다음 회계 연도의 국가 총예산을 심의하고 그 예산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국회의사당



참의원 본회의장

- 참의원 본회의장은 총 460석이며, 중앙 높은 의자가 있는 자리는 의장석이다. 그 왼쪽에는 사무총장석, 연단 아래에는 속기사석이 있다. 개회식때에는 중의원들도 참의원 본회의장에 참석하며, 모두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몇 중의원들은 맨 끝에 서있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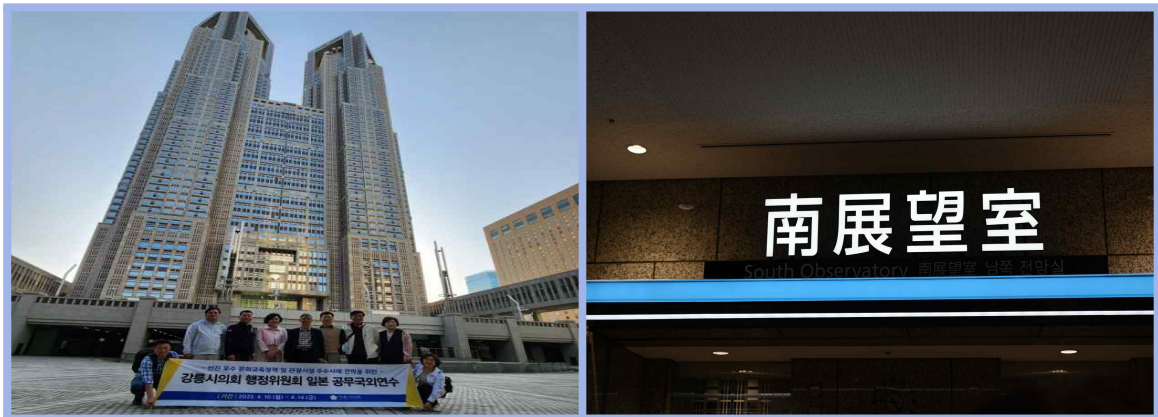
국회의사당

④ 도쿄도청사 전망대

1. 방문현황

- 방문일시: 2023. 4. 11.(화) 16:30
- 장 소: 도쿄도청사 전망대
- 내 용: 공공건물의 관광 활성화 방안

- 도쿄도의 주요 행정을 담당하는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쿄도청 건물은 니시신주쿠의 빌딩 숲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243m의 높이의 쌍둥이 빌딩이다.
- 45층에 위치한 전망대는 도쿄에 대한 관심을 높이하고자 만들어졌으며, 북동방향으로 도쿄 스카이트리, 남동방향으로 도쿄타워, 서북방향으로 12월에서 2월 사이의 맑은 날 후지산을 볼 수 있다.



도쿄도청사

전망대 남쪽전망대 입구

- 쌍둥이 타워로 전망대는 북쪽과 남쪽, 두 개의 전망대가 있으며, 현재는 남쪽 전망대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아침 9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이며,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5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전망대 중앙에 기념품샵을 운영한다.



도쿄도청사 전망대에서 본 전경



전망대

2. 시사점 및 제언

- 강릉시청은 도쿄도청과 비슷하게 강릉 시내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지대에 위치하며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강릉시청 전경



시청 18층 조망

- 시청은 18층 높이로 야간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술향명품샵과 같은 기념품점과 연계한다면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 또한, 17층 식당을 이용하여 디저트류의 음식이 판매가 가능하다면,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⑤ 아라카와구의회

1. 방문현황

□ 방문일시: 2023. 4. 12.(수) 09:30

□ 장 소: 아라카와구의회

□ 내 용: 아라카와구의회 방문

○ 인구 21만 6천 명, 면적 10.16km²의 아라카와구 2023년도 예산은 1,133억 7,000만 엔이며, 의회 예산은 6억 2,500만 엔이다.

○ 의원 정수는 32명, 의원은 임기는 4년이고, 각 8명으로 구성된 4개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지진재해, 재해대책 조사 특별위원회 등 8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조례에 1년으로 정해져 있다.

※ 자민당 11명, 공명당 6명, 공산당 6명, 유이노회 2명, 차세대미래 2명, 기타 1인당 5명



아라카와구의회

○ 회기는 매연도 5월 말에 시작하여 4월 말까지 개최되며, 해당 기간 동안 연중무휴로 회기가 진행된다. 본회의는 5월에 시작하여 6월, 9월, 11월, 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의제 등에 대한 심의가 시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본회의를 개최한다.



아라카와구의회 인사 및 간담회



아라카와구의회와 기념품 교환식



아라카와구 캐릭터(아라보) 빵



아라카와구의회 본회의장

- 아라카와구 내 미카와시마역 근처 과거 제주도민들이 정착하여 코리아타운을 형성하였으며, 2006년 제주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하였다. 2016년 태풍 ‘차바’ 때는 한국에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는 아라카와구 고년자클럽 연합회와 해외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상호 방문을 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 20세기 초중반 도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구 중에 하나였으나, 이후 17만 명까지 줄었다가 도시재개발과 도로정비를 통해 21만 명까지 늘어났다.

○ 아라카와구의 특징은 자연친화적이며, 마을 거리가 깨끗하며, 치안이 좋다.

○ 구청 앞의 아라카와 공원을 비롯하여 아라카와 자연공원, 아라카와구립아라키다 공원, 도립오구노하라공원 등 다양한 공원이 있어, 여유로움을 즐기기 좋다.



아라카와 공원

○ 또한, 아라카와구는 도쿄 내에서 치안이 좋다. 자전거나 주거 침입 등 연간 범죄 건수가 가장 적고, 거리 역시 깨끗하다.

○ 관광도시인 강릉과는 다른점이 많으나, 도시공원 조성, 깨끗한 길거리 등 도시 관리적인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으며, 도시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개발도 참고할 점이 많았다.

⑥ 도쿄도 거리

□ 방문일시: 2023. 4. 10.(월)~4.12.(수)

□ 장 소: 도쿄도

□ 내 용: 도쿄도 거리

- (주차시스템) 일본은 차량 구매 시 주차장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 중이다. 자신의 집, 아파트 또는 건물에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노상주차장과 주차 요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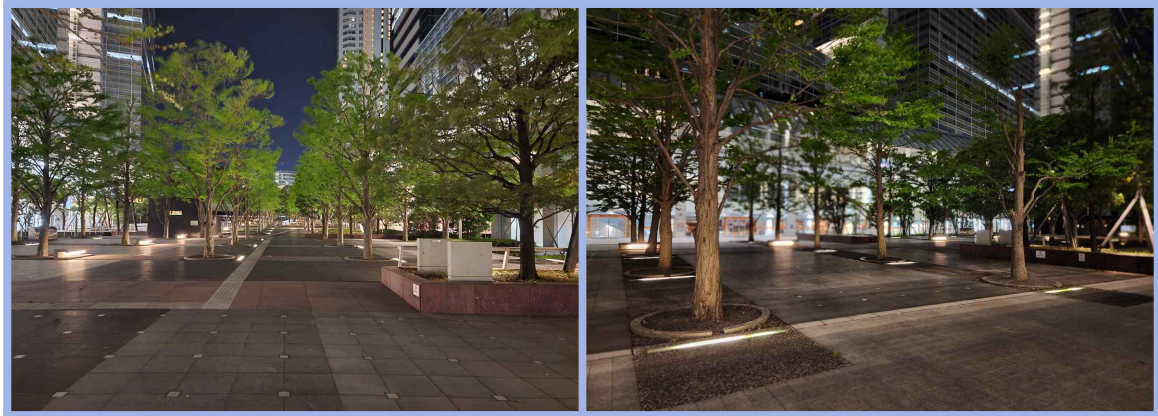
- 시내 도로 노상 주차 시에는 지정된 곳에 60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료는 300엔 선불이며, 주차 시간을 알 수 있고, 60분 이상 주차 시에는 단속 요원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강릉은 관광도시로 시민 차량뿐 아니라, 관광객의 차량 역시 많으며, 인기 먹거리 지역, 관광지 근처에는 불법 주차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많고, 사고위험 역시 높다.
-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도로의 노상 유료 주차장 마련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으며, 징수한 이용료를 통해 시민 안전시설 구축 및 어르신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물빠짐 시설) 건물 설계 시부터 배수설계를 같이 하여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게 하고, 아래쪽에는 물이 흐를 수 있게 물길을 내어 배수흐름을 원활히 하였다.



우수 라인과 물빠짐 시설

- 태풍 및 집중호우의 피해가 많은 강릉도 우수 배수 시설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차이는 일본의 경우 인도의 높낮이 경사가 조금 더 있어 물이 흘러내리기 쉽게 하였으며, 배수로 입구가 바닥이 아닌 길옆 세로로 나있고, 크기 자체는 더 작았다.
- 물막힘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배수로 입구 청소가 필요한데 조금의 낙엽을 제외하고는 이물질이 없었으며, 거리에 쓰레기가 없어 물빠짐이 원활할 것으로 보였다.
- 읍면동 직원과 지역 이·통장님들의 관심으로 주기적 청소를 하고 있으나 막히는 경우가 많아 태풍 및 집중호우 예보 시에는 내집 앞 낙엽치우기 등 시민캠페인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 (도시공원) 도쿄는 일본 제일도시로 큰 빌딩 사이로 도시 숲 조성이 잘 되어있다. 빌딩 조명과 도시 숲 바닥의 조명을 사용하여, 별도의 가로등 없이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도시공원(밤 11시경)

- 높은 빌딩사이의 도시숲을 강릉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가로등을 사용하지 않고 빌딩 숲의 빛과 바닥조명의 빛을 이용한 공원은 어둡지 않으며, 따뜻한 느낌을 주어 밤길을 혼자 걷는 사람에게도 안전감 및 안정감을 준다.
- 강릉의 몇몇 공원의 경우 밤에 가로등이 꺼져있고 어두워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다양한 주변 빛 활용 및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안전함뿐만 아니라 보기도 좋은 공원조성에 힘써야 한다.
- (국제대회 홍보) 연수기간 동안 기관 방문을 통해 2023강릉세계합창대회, 2026ITS세계총회 등 다양한 강릉개최 국제행사를 홍보하였다.



도쿄도청 앞



아라카와구의회 앞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맺음말

Ⅲ

맺 음 말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증대 방안

- 강릉은 2023년 3월 말 기준 210,678명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이동하며, 이는 인구감소, 경기침체, 지역소멸 등의 문제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러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 중이지만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지역은 점점 고령화되어가며, 생산인구는 더욱더 줄고 있는 상황이다.
- 강릉 역시 도내 20대 인구유출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일자리 매칭 역시 중요하다. 그동안 강릉과학산업단지에 다양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최근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가 있더라도 정보의 단절로 인해 제대로 된 일자리 정보를 알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 종합적인 취업 센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
- 또한, 일본은 고령자 취업 촉진 정책을 펼치며, 정년을 70세로 상향했다. 한국의 경우 정년 상향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고령자에 대해 공공분야 일자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 등에 대한 취업 소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

-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2022년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80.4%가 무박관광이었으며, 이는 강릉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방문객은 다른 관광지를 거쳐가는 도시로 느끼고 있으며, 즐길 콘텐츠가 적은 도시로 알고 있다.
- 이에 강릉은 4계절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호텔, 콘도 숙박 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며, 올해 2월 공모 선정된 ‘야간 관광 특화도시’ 사업을 통해 밤에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 하고자 한다.
- 술향수목원, 오죽헌, 경포호수 등 기존의 관광지에 야간조명과 콘텐츠를 더하고, 월화교분수조명 등 다양한 야간 볼거리를 더할 계획이다.
- 추가로 야간투어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주요 야간 관광지를 돌아보며 강릉의 다른 즐거움을 느껴보고, 강릉의 고지대에 위치한 강릉시청 꼭대기 층을 활용하여 야간투어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후기

- 당초 4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계획되어 있던 연수는 계획에 있던 도쿄 야간투어, 평생교육원, 국제학교 등의 일정을 뒤로하고, 4월 11일(화) 발생한 산불로 주민들의 피해가 커져 급히 12일(수) 귀국하게 되었다.

- 산불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가 신속히 회복되길 바라며, 이재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